

<글말교실 소감문>

누구나 한 번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나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항상 나는 나의 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다. 글을 '잘 쓴다'라는 칭찬은 많이 들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창의적이지는 못하고 나만의 개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었기에 부족함을 느꼈다. 나는 당시 글쓰기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해진 상태였고, '자신 있게 말하기' 과목을 수강하면서 말하기의 자신감을 얻고자 했는데, 교수님께서 말하는 방법은 글쓰기와도 연관이 깊다며 글말교실 수강을 권유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글말교실 특강을 듣게 되었다.

4주차 글말교실에서는 글쓰기의 진행 순서에 대해 배우며, 글쓰기 순서에 맞는 활동을 진행했다. 글제를 생각하고 약 3분간 연상된 내용을 문장으로 계속 써내려가는 활동이 있었다. 나는 항상 문장을 쓰다 지우고, 쓰다 지우고, 틀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글쓰기를 진행했었다. 그런데 이 활동은 '이미 쓴 글은 지우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이었다. 점점 활동하면서 먼저 글을 다 작성한 뒤에 소리 내어 읽으면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퇴고를 하면, 글을 쓴 후 수정하는 과정이 조금 더 편하고 깔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방법을 찾고 무작정 따라 하는 활동은 나의 글쓰기 단점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추가로 나의 글을 나 이외 다른 사람과 돌려 읽거나 협의를 통해 만든 기준안에 빗대어 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번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글을 나 혼자서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 나의 글이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색해하고 시도를 안 했던 것 같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자기소개서 예시를 보여주시면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방법으로도 표현을 바꿀 수 있구나' 등 직접적인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니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다.

글말교실은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우들도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자기소개서를 쓰면 나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글쓰기가 필요한데, 글을 쓰는 순서나 고쳐 쓰는 방법 등이 자기소개서에 활용되기에 좋으며, 좋은 글쓰기는 좋은 말하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수강했던 '자신있게 말하기' 과목이나, '인생설계와진로', '커뮤니케이션기법'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시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다. 현재 나는 주니어코렙 8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니어코렙이나 코렙 활동에도 보고서 작성, 나만의 글쓰기 등의 시간이 많이 존재한다. 몇몇 학우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학년 기초교양 과목 '글쓰기'를 제외하고는 이런 특강이 존재했는지를 모른다고 들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주니어코렙', '코렙'과 같은 활동에서 글말교실 특강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상부상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어떤 소재를 선정해서 어떤 순서로 글을 써야 하는지 고민인 학우들, '완벽한 글'을 추구하다 보니 글쓰기에 막막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 등 글쓰기 자체에 고민이 있는 학우들에게

글말교실을 추천하고 싶다. 강원욱 작가님의 <나는 말하듯이 쓴다> 책에서 글을 잘 쓰는 방법으로 '혼자 쓰기 어려우면 함께 써라. 말하듯이 써라. 잘 고쳐라'등의 조언을 봤었는데 이번 글말교실도 이와 유사했던 것 같다. 글쓰기와 말하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글말교실을 통해서 '퇴고'의 중요성과 함께 앞으로 나의 글짓기의 방향성에 대해 조금 알게 된 것 같다.